

# 지원동 '내지천'에 1급수 물고기 '버들치'가 산다

### 광주 동구·환경운동연합 '내지천 도랑살리기' 사업 성과 하천개선공사로 정화 능력 21.27% 증가 자정 작용 강화

광주지류 하천인 동구 지원2동(내남동) 내지천이 1~2급수를 대표하는 물고기인 '갈겨니'와 '버들치'가 헤엄치는 건강한 하천으로 되살아났다. 특히 환경정화 활동과 하천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하천 정화 능력이 21.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 동구와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내지천 도랑살리기' 사업 결과, 하천 자정작용에 의한 수질 개선율은 사업 전 평균 35.25%에서 사업 후에는 평균 56.52%로 개선(사업전 대비 21.27% 증가)돼 하천의 자정작용 능력이 강화됐다.

내지천은 동구 내남동에 있는 하천으로 분천에서 발원해 내지마을을 통과 후 남계마을 인근에서 영산강 지류인 광주천과 합류하는 하천으로 한때 빨래나 목욕을 할 정도로 깨끗했다.

총 길이 1.8km로 수심이 깊지 않아 피라미, 갈겨니, 참붕어 등 어종은 다양하지 않지만 우리 산천에서 볼 수 있는 고유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내지천은 마을 오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겪었다. 지난 2013년 마을하수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 농약병이나 비닐 등 농업 폐기물이 하천에 쓰레기로 유입

되고 고사목이 방치되는 등 여전히 하천 관리가 절실했다.

내지천 중상류에는 도시농업 체험공간으로 약 5000㎡ 규모의 주말농장이 조성·운영중이지만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어 비가오면 농장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었다.

또 하류인 영산강은 부영양화가 심해 매년 녹조 발생 등 고질적인 수질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상류부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발원지 중 하나인 내지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물관련 전문기관인 K-water와 지역환경 NGO가 공동으로 지역주민 참여형 '내지천 도랑살리기'를 실시했다.

물길의 발원지인 작은 도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 하천과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5월부터 내지천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내지천의 인근 주민 15명으로 내지천 지킴이인 일명 '도랑지킴이'를 구성했다.

지킴이들과 지역 거버넌스는 서로 손을 잡고 도랑 물길조성 등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또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2회 이상 하천 인근에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노랑꽃창포, 미나리 등 정화식물을 심었다. 또 총 13회에 걸쳐 도랑 환경정화 활동으로 하천내 쓰레기를 줄고 죽은 나무 등을 치웠다.

이 과정에서 하천과 하천변의 쓰레기 약 2200L, 유해식물인 환삼덩굴 약 3300L 등을 수거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주민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내지천 생태지도, 마을이야기, 내지천에 서식하는 어류, 저서생물, 식물, 내지천 살리기의 활동들이 담긴 '내지천 도랑살리기 사업 기념노트'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더불어 내지천 인근의 지한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내지천 생태체험교실(4회)도 운영했다.

또 내지천의 생태환경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내지천 생물조사도 병행했다. 구간별로 어류조사(3회), 저서생물조사(2회), 식생조사(3회)를 진행한 결과, 내지천은 수심이 깊지 않고 물살이 빠르면이따작은 보와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생물의 서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상류 도랑 특성상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오염원을 막고 본연의 물의 흐름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광주시 '지원2동 내지천 도랑지킴이' 회원들이 지난달 동구 내지마을 내지천에서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러한 노력으로 내지천은 예전 모습을 점차 되찾았다. 내지천에선 참붕어, 갈겨니, 버들치, 다슬기 등이 모습을 보였고 2급수 수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열린 현장설명회를 찾은 이상용 환경

부장관 정책보좌관도 "내지천 살리기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내지마을을 친환경 농업, 전봇대 없는 마을 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 쿠바벨벳자우꼬리박쥐·아마존비파·그린벨개구리 등 102종

우리나라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생물 102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로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우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류·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리개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과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어 지금까지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 됐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쿠바벨벳자우꼬리박쥐는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매개체로 사회·



쿠바벨벳자우꼬리박쥐

생태적 피해를 유발한다. 돼지거미는 물리면 심한 통증과 부기 등 각종 증상을 동반하고, 그린벨개구리는 항아리곰팡이병, 기생충 등 질병 매개체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은 1000종까지 확대하여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대 한지성·채호승·유주영 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환경부장관상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환경부가 주최한 '제8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에서 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대 한지성·채호승·유주영 학생(환경시스템공학과 3년, 사진 왼쪽부터) 학생으로 구성된 '물 더럽'(물 the love)팀은 올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전국 대학 72개 팀과 경쟁해 우수상과 함께 100만원의 부상을 수상했다.

'물 더럽'팀은 기존 수질오염총량제의 한계개선을 위해 단위유역 내 배출시설끼리 시설여부하량을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기반의 자발적 수질 관리를 유인하고자 하는 '수질 배출권 거래제'와 수질 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연구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질오염총량제-배출권 거래제 접목 방안: 부하량 거래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수질관리 유인'을 제안해 우수상을 인정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지성 채호승 유주영

## 광주 북구·광산구,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 전국 26곳 선정...전북, 광역지자체 유일

광주시 북구·광산구, 여주시 등이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2020년 실적)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25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1곳은 전북이며, 기초 25곳 중 1위 그룹은 경남 의령군, 울산 남구, 부산 기장군,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가 선정됐다.

2위 그룹에는 광주시 광산구,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부산 사상구, 경기 화성시이며, 3위

그룹은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전북 군산시, 대구 북구, 경기 이천시가 뽑혔다.

4위 그룹은 광주시 북구, 경기 구리시, 전북 부안군, 경기 수원시, 경남 양산시이며, 5위 그룹으로는 여주시, 강원 삼척시, 경기 오산시,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단속 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

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실태평가 방법 개선(새로운 평가지표 발굴, 평가위원회 도입 등), 혜택(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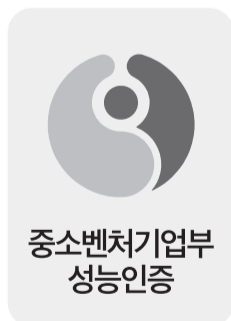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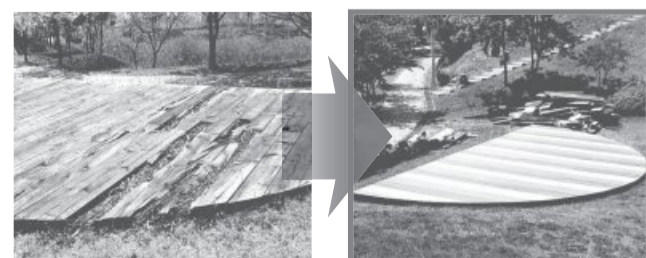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